

구미 플라스틱 재생공장 화재 발생

합성수지 타면서 유독가스 발생 ... 창고 650㎡ 전소 재산피해 8300만원

구미의 한 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8000여만원 재산 피해를 냈다.

5월11일 0시5분 경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에 위치한 플라스틱 재생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20분만에 진화됐다.

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 650㎡와 플라스틱 재생칩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.

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합성수지가 타면서 생긴 유독가스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.

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5/11>